

영화 활용 글쓰기·문학교육의 이상과 현실(1)

—1920년대 낭만주의 시와 <사의 찬미> 수업의 경우—

김 성 수*

차 례

1. 머리말
2. 영화 활용 문예사조·글쓰기교육의 가능성
3. 낭만주의 사조의 이론-감상-글쓰기 수업
4. 마무리

1. 머리말

이 글은 영화 또는 영상매체를 활용한 글쓰기·문학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현장을 중간 점검하는 일환으로 씌어진다. 문학이론의 하위범주로 문학사나 문예사조를 강의할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이론 강의에만 머물면 교수자나 학생이나 단순한 정보 전달뿐 그를 통한 삶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해 허망함을 느끼게 되곤 한다. 그래서 문학이론과 영상매체 자료를 상호 밀접하게 결합시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글쓰기로 성

* 성균관대학교 교수

과물을 내게 하는 것이 글쓰기·문학교육의 이상이라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장 수업하는 교수자들이 영화 한 편을 가지고 문학 및 글쓰기수업을 하는 실제 사례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런 현장 성과를 교육이론으로 정식화하려고 ‘영상매체 활용교육’(VIE, Video In Education)¹⁾이란 개념¹⁾을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임상실험을 계속하였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활용한 글쓰기·문학교육 영역은 시, 소설, 희곡 등의 근대문학장르, 문학적 접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계와 교육현장에서 그리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문학의 외연을 좁은 의미의 ‘문예(literature)’로부터 벗어나 ‘문화 및 글쓰기(écriture)의 장(場, field)’으로 확대하면 영화 읽고 감상 쓰기도 주요한 영역으로 새롭게 재발견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시, 소설, 희곡, 비평 등 문학의 중심장르도 실은 근대 초기의 여러 문종(文種), 장르 사이에 벌어진 역동적인 각축의 승리자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및 글쓰기의 장’은 시대의 역사적 진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정당성(legitimacy)을 주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회적 행위자들이 담론상의 실천을 통해 경합하고 각축하는 헤게모니의 장이라 할 수 있다.³⁾ 이제 문학을 좁은 의미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문화 및 글쓰기의

-
- 1) ‘영화 활용 교육’은 필자가 주창한 ‘영상매체 활용교육’(VIE<Video In Education>)의 하위개념으로서, 신문 활용 교육(NIE<Newspaper In Education>)과 함께 미디어 교육(Media In Education)의 범주에 든다. 『여간내기의 영화교실』 제2권(제4판, 컬처라인, 2003), 19쪽 참조.
 - 2) 졸고 심사에서 수업현장이 중고교와 대학교 중 어디인지 명확히 근거를 제시하라는 고마운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필자가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평가까지 한 수업은 대학의 정규강좌이며 본 논문 예문도 대학수업의 산물이다. 하지만 영화 활용 교육은 학제별 국어교육학 범주와는 다른 층위에 있기에 수업현장이 어디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글에 소개된 수업을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특강, 교사 연수, 평생교육원 및 각종 시민강좌 등에서도 적용한 바 있다.
 - 3) 여기서 헤게모니는 차이를 동질화시키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이른바 ‘습관이 형성되는 것(habit-forming)’을 통해 형성된다. 진리 체제는 그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필요와 서로 만나 역동적인 관련을 맺게 되는데, 이 바탕을 이른바 ‘문화의 장(cultural field)’이라 할 수 있다. ‘헤게모니’ 개념은 A. 그람시의 정치이론

장 속에서 토론 및 글쓰기와 연계시켜 가르쳐야 할 터이다.

글쓰기 · 문학교육과 영화의 공통적인 관심사나 실제적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대체로 문학이라는 중간 매개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영화를 넓은 의미의 글쓰기 · 문학 텍스트로 보고 영화의 서사적 문맥을 다양한 교육콘텐츠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 둘째, 소설 희곡 만화 등 문학작품 원작의 영상화나 문예 창작에서 영화 기법의 활용 등 영화와 글쓰기의 장르적 넘나들기, 셋째, 글쓰기를 교육하는 데 영화를 활용하거나 영화를 강의할 때 글쓰기 · 문학이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⁴⁾ 앞의 두 영역은 다양한 시도와 많은 성과를 냈으며 필자도 동참한 바 있다.⁵⁾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학사나 소설론 교육현장에서 한국 낭만주의를 가르칠 때 영화 <사의 찬미>의 찬미>를 보조텍스트로 삼았던 수업을 구체적인 예로 들도록 한다. 이에 낭만주의 문예사조 수업 현장을 예로 들어 (1) 이론 강의를 한 다음 (2) 그 구체적 형상을 보조텍스트인 영화를 통해 감상시키는 미디어교육을 한 후 (3) 그 느낌을 토론시키고 (4) 논의 결과를 글쓰기로 제출시키는 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김호선 감독, 임성민, 장미희 주연의 영화 <사의 찬미>(1991)는 1920년대 극작가 김우진과 성악가 윤심덕의 불륜과 현해탄에서의 정사(情死)를 다룬 멜로드라마이다.⁶⁾ 특히 1920년대 신문화운동 초창기의 한국 현대문

과 문화이론에서 인용했고, '문학장' 개념은 P. 부르디외의 문학장의 기원과 구조에서 따왔다. A. Gramsci, 로마그람시연구소 편, 조형준 역, 『그람시와 함께 읽는 문화: 대중문화 언어학 저널리뷰』, 새물결, 1992. : Walter L. Adamson, 권순홍 역, 『헤게모니와 혁명: 그람시의 정치이론과 문화이론』, 학민사, 1986: 권유철 편, 『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와 헤게모니론』, 한울, 1984 : Pierre Bourdieu,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문학 장의 기원과 구조』, 동문선, 1999. :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부르디외와 유럽정치사상』, 나남출판, 2000. 참조.

4) 김동훈, 『영상예술과 문학교육』 『문학과 논리』 제5호(태학사, 1995), 109쪽. 김동훈은 필자의 필명이다.

5) 이와 관련된 필자의 선행작업으로 『영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대경출판사, 1999) ; 『여간내기의 영화교실』 제1,2권 (제4판, 쉼처라인, 2003)을 참조할 수 있다.

학사를 가르치거나 세계문학사에서 낭만주의 문예사조에 대해 수업할 때 이 텍스트를 영상자료로 활용하면 기대 이상으로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 나아가 문학을 이론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관련 작품의 감상과 이해를 병행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글쓰기로 연계시키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2. 영화 활용 문예사조·글쓰기교육의 가능성

글쓰기·문학교육에서 영상매체의 활용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요 영역으로 이론과 관련된 난해하고 지루하며 추상적인 개념을 손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나 문학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면서 영화를 보조 텍스트로 삼는 것이 그 예인데, 현장 수업에서 시, 소설, 수필 등 전통적인 활자매체만 실례로 드는 것이 아니라 영상자료로써 영화 텍스트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효과를 볼 때가 많다는 말이다.

글쓰기·문학 연계교육의 하위영역인 문예사조 강의도 앞에서 제시한 문학사 수업의 영화 활용 교육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문학이론 수업이 문예사조 강좌이기 때문이다. 문예사조론 수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불·독문학 등 서양문학이론 위주의 강의가 전개되지만 그에 해당되는 외국문학 텍스트를 쉽게 구해 읽을 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그 이전에 문예사조론이 올바르게 교육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보편성을 지닌 세계문학사의 모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른바 '세계문학전집'이란 것이 대개 그렇듯이 영미문학, 불문학, 독문학 중심의 유럽 근대문학이 마치 세계문

6) <사의 찬미>를 90년대 초 한국영화사의 지배장르였던 멜로드라마의 하나로 규정한 것으로 유지나, 『1990년대 한국영화』 『한국영화사공부 1980-1997』(이채, 2005), 100쪽을 참조할 수 있다.

학사 전체인 것처럼 오해되고, 거꾸로 그 잘못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데 ‘문예사조’란 과목이 일조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⁷⁾

기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 각국에 통일된 유럽 문학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철저히 자국 중심의 세계문학 구상을 담은 비교문학 분야만 있을 뿐이다. 서양조차 각기 서로 다른 문예사조의 이론과 역사를 지녀 세계문학사의 보편성이 부재한데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이들 사조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가르치기란 대단히 어렵다. 영문학, 불문학, 독문학에서 지칭하는 낭만주의, 리얼리즘, 자연주의는 그 개념이 서로 다르고 이 모두를 포괄한 진정한 세계문학사 내지 세계 문예사조사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유럽 근대문학을 이해한 일종의 요약본을 마치 세계문학사의 실체인양 가르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다 보니 문예사조에 관한 한 한국문학은 서양문학의 수입상으로 전락되기 일쑤다. 심지어는 낭만주의, 리얼리즘(사실주의), 자연주의 등 서양의 19세기 문예사조가 ‘혼란스럽게 수입된’ 1920년대 한국문학은 ‘근대문학’이고 20세기 문예사조인 초현실주의, 이미지즘(주지주의) 등 최신 모더니즘이 수입된 1930년대 한국문학은 ‘현대문학’이며, 둘을 합쳐 ‘신문학’이라 부르자는 몰주체적인 서구중심주의까지 ‘신문학사조사’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실정이다.⁸⁾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 문학 중심의 기준을 세워 이론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막연한 추상적 개념과 이론,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문학만 요약해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서양의 여러 사조가 한국 현대문학에 어떻게 받아들여 도움을 주며 전개되었는지 구체적인 상(像)을 떠올리게 하면 효과적이다. 이론적 지식을 암기시키거나 서양 문학작품을 억지로 읽게 하지

7) 이러한 문제의식은 조동일에 의해서 제기되어 새로운 세계문학사의 이론적 틀은 갖춰졌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해줄 온당한 의미의 ‘세계문학전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허실』(지식산업사, 1996) ;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지식산업사, 2002) 참조.

8) 백철, 『신문학사조사』(민중서관, 1953) 참조.

않고 대신 그 시간에 관련된 사조적 특징을 지닌 영상매체(영화, 동영상 자료)를 보조 텍스트로 보게 했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던 것이다. 다음은 필자가 '문예사조론' 강의에서 시행했던 사조별 이론과 관련된 소설 및 영화의 감상과 토론 커리큘럼이다.⁹⁾

1. 고전주의, 계몽주의론; 「금시조」, 「무정」(<장미의 이름> <안드레이 류블료프>)
2. 낭만주의론;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 (<사의 찬미>)
3. 리얼리즘론; 「객지」, 「내일을 여는 집」(<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 자연주의론; 「왕릉일가」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5. 모더니즘론; 「타인의 방」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카프카>)
6. 상징주의, 탐미주의론; 「나의 침실로」, 「광염 소나타」 (<토탈 이클립스>)
7. 포스트모더니즘론; 「아담이 눈뜰 때」 (<가위손>, <동사서독>)
8. 페미니즘론; 「먼 그대」 (<텔마와 루이스>,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영상매체와 인터넷에 길들여진 감수성에 눈높이가 맞춰진 요즘 신세대 학생들에게 문학 강의는 여러 가지로 난망하다. 무엇보다도 '한국문학전집' '세계문학전집' 등을 통한 고전이나 교양명저, 대표작에 대한 독서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형편에서 텍스트 독해가 생략된 문학 강의는 기존 지식에 대한 요약, 암기에 머물기 십상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필자는 교육현장에서 수강생들의 머리 위에 이미지(마음그림)를 떠올리고 가슴 속에 감동이 생기게 구체적인 실감이 나는 영상자료를 보조적으로 보여주는 매체(미디어)교육을 시행하였다. 영상이미지로 재현된 문학사적 대표작과 영상자료에 나타난 당대 문단 풍경과 세태풍속 등을 편집해서 5,10분씩 보여주니까 문학사 상(像)을 어렵듯하게나마 상상으로 재현한 후 영화 감상으로 이미지가 각인된 데 자극받아 뒤늦게나마 문학 텍스트를 읽고 느낌을 글로 쓰기까지 하는 '감상-독서-글쓰기'의 자발적인 학습동기 유발

9)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상명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전공과목에서 수업한 내용으로, 「」 표시가 문학작품, < > 표시가 영화텍스트이다.

효과까지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¹⁰⁾

이러한데, 철학이 신학의 시녀 노릇을 했던 중세 기독교사상이 종말을 고하고 근대적 합리주의 사상에 근거를 둔 르네상스기의 근대 초기 문예 사조를 설명할 때,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을 장 자크 아노가 영화화한 <장미의 이름>(1986)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영화는 신앙에 근거를 둔 중세와 이성에 기초한 근대의 문화사적 변모라는 난해하고 거창한 주제를 웃음의 철학과 연쇄살인범 추적담으로 흥미롭게 그림으로써, 학생들에게 고전주의 사조 이전 르네상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가르치는 교수자조차 제대로 이해, 체화하지 못한 세계문학사나 외국 문이론을 따분하게 암기시키는 것보다는 영화를 통해서나마 각 문예사조의 이론적 특징과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감나게 간접체험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문학사적 중요성과 영상자료의 완성도는 물론 수강대상의 눈높이에 알맞은 교육적 가치와 수업 현장의 상황과 시간 배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과제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이론 수업을 글쓰기까지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영화 등 영상매체를 활용했을 때 얻는 성과를 감안하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3. 낭만주의 사조의 이론-감상-글쓰기 수업

3.1. 낭만주의 '이론' 수업

영화 <사의 찬미>에는 극작가 김우진(임성민), 성악가 윤심덕(장미희), 작곡가 겸 바이올리스트 홍난파(이경영), 프로문학가 조명희(조선묵), 연극

10) 다만 글쓰기든 문학사든 관련 동영상자료를 편집해서 강의하는 작업은 기술적으로나 저작권문제로나 기대만큼 간단하지 않고 보완해야 할 콘텐츠와 강의방식의 획기적 개척이 요구되는 만큼 후일의 과제로 남긴다.

인 홍해성(조민기), 화가 박정식 등 1920년대 초반 신문화운동 초창기의 선구적 문인 예술가들이 등장한다. 김우진과 윤심덕의 불륜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유학생 출신 신지식인들의 동경 유학 시절과 고국에서의 활동이 정신적 방황과 이상 추구, 의식 개혁과 자유연애, 죽음에 대한 낭만적인 동경과 현실 도피 등의 행태로 그려져 있다.

학생들에게는 미리 영화를 보고 오라고 하거나 수업 중에 보여주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배경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문학이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영화의 일부분을 잠깐잠깐씩 보여주면서 이해를 돕는 것 어느 방법도 상관없다. 하지만 아무 사전 설명 없이 영화만 보고 오라면 1920년대 동경 유학생들의 유치한 모습이나 러닝타임인 160분씩이나 되는 지루한 불륜드라마를 참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경험상 수업 중에 10분 정도 사전 배경지식을 설명하고 중요한 대목만 40분씩 2차례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았다. 그를 위해서는 교수자가 먼저 동영상 자료를 적어도 2번 이상 보고 사전 준비를 한 후 수업에 임할 필요가 있다. 수업 시간에 동영상 자료의 중요 대목은 자세히 보여주고, 필요하면 화면을 정지시킨 후 설명하고 나머지는 빨리 돌려봄으로써 시간 배분을 잘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먼저 낭만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사항을 수업하고 나서 영상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중간에 영화를 본 후 다시 질문을 받고 답변하거나, 아예 조별로 발표 토론을 시킬 수도 있다.

먼저 낭만주의의 특징과 1920년대 한국에서의 수용과정에 대한 이론 강의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낭만주의(浪漫主義)는 원래 로맨티시즘(Romanticism)의 한자 음차로서 독일 극작가 셸러겔(Schlegel)형제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그 어원은 서양 중세의 로망스(Romance)에서 유래하였다.¹¹⁾ 루소의 계몽사상과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대표되는 1770-1830년대 ‘질풍노도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절대왕정 시대의 기존 인습에 항거하는 청년들의 자유 추구정신이 문학예술에 표현된 것이다. 낭만주의자들은, 안정된 질서를 중시하는 고전주의에 맞서 무질서, 역

11) 김효중 외 『문예사조론』(새문사, 2003), 33쪽 참조.

동성, 다양성, 내면성, 내세 지향성, 자발성을 중시하고 감수성과 상상력을 주요한 창작동인으로 삼았다. 고전주의자들이 귀족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이성적 규범과 규칙을 중시한 미학을 내세운 데 반발해서, 인간 본연의 자연스런 감정과 자유를 중시하는 상상력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근대 시민사회 초기의 시민적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 것으로 부르주아문학의 초기적 건강성을 대변하였다. 하지만 부르주아사회의 부패상을 직시한 리얼리스트에 의해 낭만주의 사조가 지닌 시적, 공상적, 극단적 편향이 비판받으면서 쇠퇴기가 되면 구체적인 현실보다는 죽음을 찬미하는 등 이상세계에 대한 몽상에 사로잡혀 퇴폐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10년대 말부터 20년대 초까지 문학사를 이끌었던 동인지 문단을 중심으로 낭만주의가 유입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1919년 「창조」의 주요한, 1920년 「폐허」의 염상섭, 1921년 「장미촌」의 황석우, 1922년 「백조」의 남궁벽, 홍사용, 이상화, 박종화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낭만주의에 대한 기존 논의를 보면, 근대문예사조사 연구의 선편을 권 백철은 임화의 「신문학사」(1940) 구도를 이어받아 한국 낭만주의가 이상주의적 경향과 병적 감상주의적 경향의 두 주류로 전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전자는 이광수의 초기 문학부터 주요한, 그리고 김기진, 조명희 등의 신경향문학까지, 후자는 <폐허>, <백조>지의 문학이 중심이 된다고 했다.¹²⁾ 조연현은 백철이 거론한 후자의 경향을 9가지의 범주로 구체화하여 언급하면서, 이는 특히 3.1운동 이후의 '사회적 민족적인 절망과 새 출발의 교착에서 빚어진 청년적인 감상과 흥분의 기분운동'으로 그 성격을 규정했다.¹³⁾ 이러한 백철, 조연현의 담론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현대문학사'의 정전으로 자리잡으면서 김학동, 신동욱, 정현기, 박철석 등에 의해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고 일종의 정설로 고착되었다. 김학동은 한국 낭만주의의 성립과 관련하여 전신자로서의 당시 일본문단의 경우와 이의 수용과

12) 백철, 「신문학사조사」(민중서관, 1953. 5), 142-164쪽 참조.

13)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제1부(현대문학사, 1956), 333-379쪽 참조.

정을 파악했으며, 신동욱은 <백조>지의 문학적 특색을 시적 자아의 성격 구성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¹⁴⁾ 정현기는 낭만주의 문학의 사회적 기반을 더욱 철저히 해명하면서, 이의 문학적 특징을 이상화의 시세계를 통해 밝히고자 했다. 한편 박철석은 한국의 낭만주의를 소극적 낭만주의와 적극적 낭만주의로 구분하면서, 특히 후자에 신경향파시와 카프의 프로시를 해당시켜 논의했다.¹⁵⁾

그러나 이들 논의에는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 당대 한국문학과 문예사조의 관련양상을 낭만주의, 상징주의, 리얼리즘의 상호 역동적인 운동적 실체로 인식하지 않고 다분히 문인 개개인의 문단적 위치나 기분, 취향에 따라 서구사조를 맹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기말의 우울과 퇴폐의 감상주의가 후기 낭만주의와 연계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당시 문단에 수용되는 과정은 초기 낭만주의와 그리 엄격한 구분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는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싶다. 그래서 이 시기의 문예사조를 논의하면서 그 기준을 상징주의 또는 낭만주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작가, 작품에 대한 상당히 유동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만든다.¹⁶⁾

그런데 1920년대 초기 낭만주의자들은 대부분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중산층 지식인으로서, 20세 전후의 젊은 혈기에 들뜬 열혈청년들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그 나이 청년이면 으레 지냈을 열정과 패기, 자기 분열과 정신적 방황, 혁명적 정열과 유행충동 심리에 사로잡혔고 개화, 경술국치, 3.1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식민지적 근대화의 소용돌이와 사상적 혼란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후일, 박종화의

14) 김학동, 「한국 낭만주의의 성립」, 김용직 외 편, 『문예사조』(문학과지성사, 1977), 369-383쪽 ; 신동욱, 「백조파와 낭만주의」, 위의 책, 384-394쪽 참조.

15) 정현기, 「낭만주의 문학의 한국적 수용」, 이선영 편, 『문예사조』(민음사, 1996), 292-311쪽 ; 박철석, 「한국 낭만주의시 연구」(세종대대학원 박사논문, 1987) 참조.

16) 이상화의 시 「나의 침실로」를 두고 죽음을 찬미한 낭만주의인가 '동굴'의 종교적 상징에 근거한 상징주의인가 논란을 벌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정현기, 위의 글 ; 오세영, 「한국 낭만주의 시 연구」(일지사, 1980) ; 강우식, 「한국 상징주의 시 연구」(문학아카데미, 1999) 참조.

회고를 봐도 이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백조>를 중심으로 하여 흐르는 사조는 ‘낭만’ 그것이 아닐 수 없었다. 첫째로 나이가 모두 갓 스물을 전후한 약관이었다. (중략) 이 참담하고 기마킨 파도 속에 자라나서 어연 약관이 되어 스스로 3.1운동에 한 사람의 병졸로 참가했던 이 무리들은 실로 모두 다 한학의 조박이 있었을 뿐 아니라 거세인 풍파는 이들로 하여금 조숙하고 숙성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는 인위로써 맨들러진 강제구속을 깨트리고 자유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자유를 발휘하는 것은 곧 미(美)인 것이다.”하고 부르짖은 ‘시르레르’를 발견하자 하나의 새로운 경이와 동경과 정열에 밤새지 않을 수 없었다 (중략) 이 때의 문학의 주조가 낭만과 상징 그리고 ‘데카당’에 흐르게 된 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환경 속에 서 있고 또한 3.1운동을 치른 뒤에 오는 절망적인 자연히 이 길로 우리의 젊은 문인을 끌고 드러가게 만들었으니, 모두 다 한이요 애수요 자포자기요 유미 탐구뿐인 것이다.¹⁷⁾

이러한 정서는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나 박종화의 「사의 예찬」, 박영희의 「월광으로 잔 침실」 등에 잘 드러나 있다. 이들 시에는 탐미적 정서와 죽음을 미화하는 병적 감상주의가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¹⁸⁾ 서양식의 건전한 시민의식에 기반을 둔 적극적 낭만주의라기보다는 퇴폐주의와 결합된 소극적 반동적 낭만주의에 머문 셈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서구에서 태동된 낭만주의 문예사조의 이론적 특징과 한국문학사에서의 역사적 전개를 배경지식으로 설명한 후, 다음 단계로 1920년대 문인 예술가들의 모습에서 낭만주의자들의 형상과 낭만주의란 사조가 생활감정에 끼친 영향을 영화 감상을 통해 터득하게 한다. 이때

17) 박종화, 「백조시대의 회고」 『문예(文藝)』 제3호, 1949. 10. 123-124쪽.

18) 이러한 비판적 시각으로 동인지 문인들의 정신세계와 문단, 작품을 증산층 출신 동경 유학생집단의 혼돈과 치기의 산물로 조명한 논문으로 김홍규, 「1920년대 초기시의 낭만적 상상력과 그 역사적 성격」 『문학과 역사적 인간』(창작과비평사, 1980)을 들 수 있다. 그의 논의는 리얼리즘미학의 가치에 대한 과도한 특권화와 속류사회화주의적 편향이 엿보여 한계를 보인 점이 아쉽다.

영화 <사의 찬미>를 매체교육의 텍스트로 활용하면 학생들의 머릿속에 회미하거나 어지럽게 자리잡았던 낭만주의의 실체가 좀더 구체적인 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교육 현장에서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되, 이론적 특징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각인되도록, 그때그때 영상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정지화면으로 잡아 각 장면(미장센)의 의미를 각인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3.2 <사의 찬미>를 활용한 낭만주의 '감상' 수업¹⁹⁾

영화 <사의 찬미>는 김우진과 윤심덕 등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의식 개혁과 신문화운동을 벌이다 세계의 장벽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적 파탄을 맞아 불륜과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신청년, 신여성의 형상을 탐미적 영상으로 그려낸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낭만주의적 특징과 1920년대 사회상은 어떻게 드러날까?

<사의 찬미>에는 첫째로, 낭만주의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 개인과 사회의 대결 형태로 드러난다. 즉, 보수적이고 유교적 인습에 젖어 있던 사회와 선구적인 유학과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던 자유에의 이상이 대립된 모습을 보여준다. 집안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애정문제, 사회생활에까지 이러한 대립된 모습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

김우진은 목포 만석꾼 집안의 장남이지만 자신을 억누르는 전근대적 유교사상에 젖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아버지의 기대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그는 가문을 중시하고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저

19) 이 부분은 중고생 대상의 교양서에 실린 관련 내용을 학술논문 형식으로 대폭 수정, 보완해서 학계의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김동훈, 「<사의 찬미>와 1920년대 한국 낭만주의」, 『여간내기의 영화교실』 제2권 (컬처라인, 2003), 65-79쪽 참조.

버리고 문학을 선택한다. 그가 신극운동을 선택함으로써 생겨나는 아버지와 마찰은 기존의 유교적 사회와 그것을 거부하는 근대적 개인과의 대결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에 철저한 자유연애 또한 유교적 인습이 잔존해 있던 1920년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유연애가 수용되지 않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김우진과 윤심덕은 자신들의 애정 감정에 솔직하고자 했다. 이것 또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했던 개인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와의 갈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순수예술을 추구하고 실현코자 하는 개인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의 관습에서 오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경 유학을 한 김우진은 국내로 돌아와 <산돼지> 등의 정통 희곡을 써서 신극운동을 벌이려고 하나 좌절한다. 예술지향적인 신극이 아닌 상업주의 신극만 하라는 당시 연극계의 분위기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심덕도 자신이 유학시절 배운 순수예술로서의 성악을 하고자 하나 벽에 부딪친다. 서양식 성악을 펼칠 만한 무대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음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유행가 중심의 가요계와 갈등을 겪게 된다.

이처럼 그들은 동경 유학시절 자신들이 배운 문학과 음악을 펼쳐 보고자 하나 신극과 유행가 같은 대중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식민지 조국에서는 자신들의 순수예술이 펼쳐질 수 없음에 좌절감을 느낀다. 이것은 순수예술을 동경하고 그것을 실현코자 했던 개인의 이상이 당대 조선사회에 팽배해 있던 신극과 유행가에 밀려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좌절과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사의 찬미>에는 낭만주의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현실 도피와 절망'이 주된 정조를 이룬다. 인습의 장벽을 넘어서서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확인한 두 주인공은 둘만의 사랑을 나눌 장소인 일본 북해도로 떠난다. 그들에게 있어 북해도는 불륜이라는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택한 이상향이었다.



* <사의 찬미>에서 김우진과 윤심덕의 복해도 밀월여행 장면

하지만 김우진은 자신이 택한 도피처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낭만적 도피를 감행했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윤심덕은 행복이든 불행이든 자신의 사랑을 택하겠다는 결의를 보인다. 그녀의 결의는 기존의 인습과 도덕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랑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억누르려는 행동이다. 그들은 한편으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고 다른 한편에선 그 현실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중적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들의 도피행각에는 절망적인 현실로 인해 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과 가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적인 태도가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²⁰⁾ 결국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그로부터 벗

20) 이와 관련하여 <백조>파 박종화의 수필을 보라. “...모든 진리여 스러지거라 모든 생이여 격구러지거라 인간의 행복이란 다 무엇이뇨 희망의 유열(愉悅)이란 다 무엇이뇨 지옥에 문에 넘어진 것이 일은바 곳 생이요 ... 인생은 모다 녹슨 영혼의 찬가를 부르는 퇴폐의 제단에 나아가 닦쳐진 행복의 문을 열어 주소서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곳에 무슨 진리가 잇스랴 무슨 광휘가 잇스랴.” 박종화. 「

어나서 자신들만의 세계 즉, 절대적 세계를 동경하지만, 그 실제인 현실 도피를 통해서도 추구하는 비를 얻지 못하고 마침내 깊은 절망에 빠진다.

셋째로, 이 영화에는 낭만주의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죽음에의 찬미가 표현되었다. 화가 박정식은 연극 연습 중 만난 윤심덕에게 첫눈에 홀딱 반해 비정상적으로 집착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녀 자체를 외면하고 오로지 구원의 여인상이라 할 자신의 이상으로 삼아 수없이 많은 초상화를 그리고 또 그렸던 것이다. 때문에 실체 없는 그의 애정 고백은 윤심덕에게 단호히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는 그녀의 사랑 이외엔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이른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일부 신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천착 없이 자신들의 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좌절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흔히 자살을 택하고 죽음을 미화하였다. 이는 질풍노도운동 시기의 유럽 청년들이 모방했던 자살 유행열과 맞닿아 있다.

김우진과 윤심덕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순수예술과 사회가 요구하는 상업적 대중예술의 괴리감과, 자유 연애사상과 그들을 불륜관계로 손가락질하는 봉건적인 인습 사이에서 갈등하다 사회의 냉대와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절망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들이 꿈꾸어온 이상세계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극단적 선택인 '정사(情死)'를 택한 것이다. 그들은, 현해탄을 오가는 관부연락선 배 위에서 3등 선실의 조선인 승객들이 비참하게 고생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와 조선, 조선인의 처지를 동일선상에서 생각하게 된다.²¹⁾ 그리고는 윤심덕에게 우리 삶에서 더 아껴야 할 것이 남아있는지 묻는다. 결국 그들은 바다로

영원의 승방몽(僧房夢), 『백조』1호, 1922, 57쪽.

21) 한편, 영화의 서사문맥과는 상관없이 관부연락선의 3등 객실 장면은 염상섭 소설 『만세전』(1922)에서 이인화의 귀국 연락선 장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대치시켜도 좋을 탁월한 동영상이라고 하겠다. 필자는 실제로 『만세전』을 가르쳤던 성균관대학교 현대소설론 수업현장(1994년 1학기 이후 여러 번)에서 이 영상을 활용해서 학생의 호응을 얻은 경험이 있다.

뛰어들어 동반자살한다.²²⁾ 자신들이 꿈꾸어온 이상세계로 가기 위한 통로가 죽음이라는 발상 자체가 바로 낭만주의의 한 특징이었다.

영화 결말에 나타난 김우진과 윤심덕의 현해탄 정사(情死) 장면으로 상징되듯이 1920년대는 '연애의 시대'였다. 하지만 그들의 불륜과 자살은 일본을 통한 서구식 근대화를 모방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근대를 치열하게 산 것이 아니라 서구인의 근대를 연애와 정사로 '연기'한 것에 불과했는지도 모를 일이다.²³⁾ 그들의 죽음은 현실 장벽에 맞서 싸우다 좌절한 리얼리스트의 그것과는 다른 자기도취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절망적인 현실에서의 인생도 가치가 없고, 그렇다고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 이상향도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선택이 죽음이라는 점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들은 죽음만이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세계로 찬미하면서 죽음을 미화한다.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세계라는 역설이 바로 낭만주의의 특징인 셈이다. 하지만 불륜과 정사를 현실과의 대결 끝에 다다른 결말이라는 것은, 저 서구 부르주아 낭만주의자들의 초창기 건강성을 상실한 말기적 현상, 반동적 퇴폐적 편향에 빠진 징표일 뿐이다. 진리는 죽음의 세계에나 있다는 그들의 태도는 당시 한국 낭만주의의 퇴폐적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주목할 점은 1920년대 초 동경 유학생 출신 지

22)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1926년 8월 4일 새벽의 일로서, 이들은 160원의 돈과 금시계, 그리고 유서만 남기고 시체도 발견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 김우진과 윤심덕의 현해탄 정사는 그 자체로 대단한 뉴스거리였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에서는 조선인의 관부연락선 정사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연일 보도에 열을 올렸다. 『조선일보』 1926년 8월 5일자 기사. 이철, 「모던보이와 모던걸의 치명적 사랑」, 『경성을 뒤훑든 11가지 연애사건』(다산초당, 2008), 44쪽 참조.

23) 1920년대엔 박래품인 연애열이 성행했으며 이는 '환상적인 거짓말의 공간'이지만 나름의 근대화 열기를 담고 있다고 한다. 가령 신여성 지망생들이 낯모를 상대에게 밤새워 열정적으로 편지를 쓰는 행위. 그것은 근대적 학교나 교통수단이라는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서구라는 낯선 매혹과 근대라는 신식 제도를 연기하는 것이라 한다. 연애를 열정적으로 연기하는 동안엔 새로운 문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신지연, 「연애편지, 1920년대 대중의 출현 - 노자영 『사랑의 불꽃』」, 인터넷 컬처뉴스(2007-09-04 오후 4:55:49) 참조.

식인들의 긍부정적 행태이다. '신문화운동'이란 1920년대 초 근대 초기의 선구적인 유학생, 문인, 예술가, 지식인들을 통해 나타난 신평속도를 이르는 말이며 하나의 사조이자 예술운동이었다. 영화에는 김우진, 윤심덕, 홍난파, 조명희, 박정식 등이 동경 유학을 통해 서양식 근대문화를 접하고 이를 국내에 소개하는 운동을 벌이게 된다. '학생 예술극회'의 조국 순회 공연을 벌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신극단을 조직하려 노력하는 김우진, 여자의 몸으로 유학 가서 성악을 전공한 후 순수음악만 고집하는 윤심덕은 현실 세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신들이 배운 예술을 펼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봉선화'(1920)라는 민족 음악을 만드는 홍난파, '극단적 이상주의'라는 비판 속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천한 조명희,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자살을 택한 화가 박정식 또한 이 시대 신문화를 접한 선각자들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경 유학생 출신 신지식인들의 역사적 기여를 긍정만 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도 놓칠 수 없다. 영화 중간쯤 순회공연이 좌절한 이후 극단 일행이 목포 김우진 집에서 사기 진작 차원의 음악회를 여는 장면을 보도록 하자. 그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조명희 군은 러시아로 들어갔다더군. 시를 쓰는 정군은 만주 독립군에 가담했다네.”

“지랄 같은 세상에 술에 취해서 살거나 아니면 그 길뿐인 것 같네.”

“사람들은 구시대의 사상을 버리려고 하지 않네...(중략) '의식의 혁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야. 일본이 나라를 통치하든 말든 무사안일주의가 점점 팽배해가고 있어.”

함께 유학생 운동을 했던 동지들 중 고학생 출신인 조명희 등 좌파는 직접 투쟁에 나서는 등 최소한 고국에 돌아와 불륜이나 저지르고 좌절에 빠지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반면 부잣집 자제들인 우파는 좌절하거나 친 일파로 전락한다. 유학생 출신 학생 순례극단 '동우회'의 지도자격이었던

김우진이 목포 대지주인 부친의 반대로 신극운동은커녕 유학조차 중도 포기해야 되는 입장을 밝히자 윤심덕은 냉소적으로 반문한다.

“모두들 머릿속으로만 ‘의식의 혁명’이고 자유를 찾더군요. 거창한 것만 혁명인가요?”

“맞소. 자유연애도 혁명이지. 그것부터 시작해야 해. 하하하하.”

윤심덕의 항변이 바로 20년대 한국 낭만주의의 사상적 배경과 동경 유학생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관념을 버리고 현실적인 근대화 노력을 하라는 의도야 일리가 있지만 그 내용이 기껏 자유연애를 빙자한 불륜과 도피행각, 동반자살이란 말인가.²⁴⁾

이들 신지식인들의 낭만주의의 역사적 성격은 바로 이어지는 영화 장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전통 한옥의 뜰에서 벌어지는 서양식 음악회는 친구세대 갈등과 모순의 상징이다. 같은 화면에 낡은 한복을 입은 머슴과 하녀들이 뒤에 서 있고 프록코트 등속의 양복 정장을 차려입은 유학생들이 서양식 가든파티용 의자에 앉은 채 뒷마루에서 서양 가곡을 부르는 윤심덕의 공연을 보는 시퀀스를 보자. 연출자 김호선 감독의 의도가 담긴 미장센 효과 때문이겠지만 섬세한 관객에게는 위화감을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다. 중간에 사랑채의 김우진 부친이 못마땅해하는 모습이 비취짐으로써 이 시퀀스가 불러일으키는 모순된 감정은 점차 고조되고 결국 해변가에서 김우진과 윤심덕의 밀회와 키스 장면으로 우스꽝스럽게 마감된다. 이런 시퀀스와 미장센 효과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윤심덕이 내세우는 신세대의 의식 혁명이란 결국 자유연애로 상징되는 불륜에 대한 찬양에 불과했던 셈이다.

식민지자본주의의 혜택을 듬뿍 받은 중산층 출신이 다수를 이룬 동경

24) 원래 낭만주의를 처음 주창한 독일의 레싱, 헤르더 등은 과거의 모든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정신, 보다 자유스러운 것을 찾으려는 의식혁명을 내걸었지만 그것은 중세 귀족을 흉내낸 초기 부르주아의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이었지 불륜을 합리화한 것은 아니었다.

유학생 출신 신청년과 신여성 등 20년대 초 동인지 문단을 좌우했던 근대 문인 지식인이 수용했던 낭만주의란 무엇인가. 실상 저 유명한 위즈워드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하는 초기 부르주아의 자유 구가나 그리스 독립전쟁에서 자유를 위해 제 한 몸 기꺼이 희생했던 바이런처럼 탈식민지를 향한 건강한 시민성이 전제된 것이 아니었다. 적극적 낭만주의를 향한 시민의식이 휘발된 식민지 부르주아의 역사적 운명이란 결국 부잣집 자제들의 ‘불륜 찬가’에 다름 아니었던 셈이다.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내팽개치고 불륜 상대에게 밤새워 열정적으로 편지를 쓰고 그리워하다 아예 노골적으로 가출 밀월여행을 떠나고 그러다가 식민지 현실을 핑계 삼아 자살에 이르는 길. 이를 20년대 식민지 근대의 대중관객과 그들이 동경해마지 않는 모던보이와 모던걸, 신여성 또는 그 지방생들이 열망한 셈이다. 이는 결국 식민지 근대의 한 본질적 국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미장센이다. 논지를 좀더 확대하면 그것은 근대식 교육과 교통 통신의 발달이라는 근대문물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을 통한 서구 근대’라는 새것에 빠져드는 것이다. 불륜을 통해 자유연애를 소비함으로써 새로운 근대화 기획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동참의식과 안도감, 그것이 바로 유행처럼 번진 불륜과 정사, 그리고 그것을 서구 및 일본과 동일한 근대라고 생각했던 당대 지식인의 본 면목이었다. 이는 ‘일본을 통한 서구 근대’ 문화를 자기 것인양 착각 속에 향유했던 식민지 대중의 진정한 실체이기도 하다.²⁵⁾

3.3. <사의 찬미> 토론과 ‘글쓰기’ 수업

영화를 보고난 후, 또는 영화를 보면서 학생들에게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자기 느낌을 발표시키도록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환상적인

25) 근대적 합리성도 식민지인의 무의식에 내면화하지만 표면으로는 식민화된 지배 방식에는 저항함으로써 분열상을 보이는데, 이를 ‘무의식의 식민화’라 할 수 있다.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역사비평사, 2003) ; _____,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휴머니스트, 2007) 참조.

영상미와 관객을 감상에 젖게 만드는 음악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다. 영화는 '사의 찬미'라는 러시아 민요의 단조음악과 비장한 음향효과, 카메라를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도록 자주 사용된 클로즈업 촬영기법, 옅은 갈색 필터를 사용한 파스텔 조의 비현실적인 화면과 역광을 적절히 쓰고 있다. 그럼으로써 감상적 음향과 환상적 영상을 통해 자연스레 관객을 극적 상황에 몰입하게 만드는 멜로드라마의 공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하지만 감독의 의도도 담겨 있겠지만 배우들의 과장된 몸짓과 튀는 발성이 어우러진 신파조 연기 탓에 정서적 몰입을 하기 어렵다. 어찌보면 멜로드라마의 영화적 관습을 깨는 것이어서 관객이자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멜로드라마의 상투적 영화문법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제작자 감독의 의도에 정서적 일치만 강요당하지 말고 올바른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비판적 거리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식민지적 근대라는 당대 상황과 낭만주의의 특징을 연결시켜 이해하길 바랬다. 하지만 토론은 자유롭게 시켰다. 토론 후 글쓰기 수업에서는 책이나 신문 잡지에 나와 있는 영화 정보나 기사, 평문 등 남들의 지식을 절대로 베끼지 말고 자신만의 솔직한 느낌을 담으라고 강조하였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갖가지 반응이 나왔다.

(학생 감상 1)

<사의 찬미>가 1920년대 신문화 초창기의 선구적 유학생의 시대 풍속도이고 문인, 예술가의 초상이라고 배웠다. 영화에선 낭만화된 죽음을 미화하고 있으며, 낭만이란 어감과 풍기는 내용이 얼핏 퇴폐적이란 느낌이 있지만, 그들은 정서를 더 표출한 과잉 감상에 빠져든 것이 아닌가. 3.1운동의 좌절 이후 옛것은 사라질 무렵 새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 고민하는 가치관의 공백상태, 불안, 불확실성, 현실에서의 불만과 불안을 과거 또는 신비, 환상 등에서 씻어 보려고 했다. (중략)

영화에 나오는 그들의 고민과 방향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지루하고 웃겼다.) 하이네가 애인을 잃은 체험을 죽음에 대한 동경으로

표현한 것이 낭만주의라는 말이 오히려 가슴에 남는다.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에서 침실을 관능적 쾌락과 도취로 얼룩진 죽음의 장소라고 한 것과 관련시켜서 말이다. 내 요즘 생활이 온통 질풍노도 같기 때문인지 낭만이란 개념이 죽음과 관능적 쾌락을 멋지게 말한 것 같다.

(학생 감상 2)

나도 낭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나. 그러나 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서 비판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차피 같은 세상을 살 바에 차라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난 아직도 왕자와 공주 세계를 동경하는 한 소녀이다.

이 영화를 보며 나도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꼭 하고 싶다는 바램도 생겼다. 윤심덕의 사랑은 현실과 맞지 않으면서 그 괴리 때문에 좌절하지만 그런 만큼 특별한 다른 가치가 존재한다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약간의 스릴감도 있었겠고, 그 고귀한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지만 해보고 싶다.

(학생 감상 3)

나는 윤심덕의 사랑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난 한 남자에게 모든 걸 걸고 (여기서 기대를 거는 것은 외모나 물질 아닌 정신적 기대라 할 수 있다) 믿는 형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좌절할 때 그를 일으키는데 정신적으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참고로 살펴야 하는 인물은 김우진이다. 그의 신념이 무엇이길래 윤심덕은 그를 믿고 생활한 것일까? 오로지 젊은 날의 자유와 낭만? 그래서 나중 그 신념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통해 사회와 타협할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 난 사실이 맨 끝의 결과가 죽음이 그리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해가 안 간다. 나라면 그런 도피성 뉘세가 나는 결과를 택하진 않을 거다. 그가 다시 재기 하는데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다.²⁶⁾

26) 1996년 1학기 상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 대상 '문예사조론' 강좌 수업 중 낭만주의 전반에 대한 강의(이 글의 3장 1절)를 하고, 관련 부분을 일부 캡처한 <사의 찬미> 동영상과 함께 감상한 후 간단한 토론을 시켰다. 그 결과를 다음

글쓰기·문학 교육의 일환으로 문예사조에 남들의 지식을 나열하지 말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글쓰기를 해보라고 교육하자 나온 반응들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드라마 자체에 전혀 몰입되지 않았다. 남학생 대다수는 정서적 몰입보다는 <이수일과 심순애> 식의 유치한 신과 코미디를 보는 듯 반응하기도 하였다. 특히 배우 장미희의 답살 듣게 하는 소프라노 톤의 일부러 꾸민 듯한 신파조 대사에는 감정이 동화되기능커녕 위화감을 느낀 나머지 더욱 거리감을 확인하는 웃음만 보일 뿐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지루하고 웃겼다.”는 남학생의 글쓰기는 80년대식 신파조 정서에 체질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21세기 신세대의 반응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자유토론과 글쓰기를 시킨 후 방만해진 논의를 정리하여 낭만주의 및 신문화운동의 특징을 좀더 찾아보도록 심화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글쓰기·문학교육의 현장에서 볼 때, 영화 감상과 토론, 글쓰기를 통해 자아 발견과 행동 수정을 해나가는 인지적 단계를 밟는 좋은 예로 평가될 것이다. 글쓰기 과정의 각 단계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왕복을 반복하게 된다. 글쓰기가 회귀적이라 함은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²⁷⁾

수업 차시에 수강 및 토론보고서로 제출하게 하였다. 인용문은 그 중 세 수강생의 보고서 일부이다.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출처를 명기할 수 없지만, 이 수업의 수강생이 2008년 현재 성균관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데, 10여 년 전의 수업 풍경(이론 강의- 영화 감상 - 토론- 글쓰기)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2009년 2월 21일 서울 명륜동에서 이희영 증언.

- 27) 글쓰기가 글을 쓰는 동안 필자 자신의 중간 점검을 통해 자기회귀적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엔 삶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은 인지주의나 사회구성주의 글쓰기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Linder Flower & John R. Hayes, "Identifying the organization of writing processes," L. Grege & E. Steinberg ed., *Cognitive Process in Writing*, Hillsdale, NJ : LEA., 1980, pp.5-30 참조. 이들은 설명적 글쓰기 과제를 교수자에게 제시한 다음, 글을 쓰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그대로 표현하게 하는 'thinking aloud protocol'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글쓰기 과정의 인지 구조 및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모델화를 시도하였다.

4. 마무리

한국문학의 낭만주의적 경향은 3·1운동 이후부터 1925년을 전후한 시기까지의 근대시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소설에는 리얼리즘적, 자연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낭만주의적 경향은 주로 시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시를 살펴보면 암울하고 절망적이며 현실도피적인 경향이 전반적인데, 그 요인을 당대 상황과 연결시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영화 <사의 찬미> 감상 토론이 일정 정도 효과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사의 찬미>를 통해서 1920년대 초 한국 낭만주의의 형상과 신문화운동의 초기 모습을 분석하였다. 영화에는 한국적 낭만주의의 반동적 특징과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펼쳐진 신문화 운동의 공과가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중산층 출신의 동경 유학생 지식인들로 이루어진 '동인지 문단 문학'에서 두드러진 특징인데,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의 침체에 대한 울분과 그것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적 대리보상 욕구 때문에 절망의 정조와 현실 도피적 퇴폐에 빠져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²⁸⁾

192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는 한편으로는 식민지 종주국 일본에 의해 주도되는 파행적 근대화를 진행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근대적 봉건적 인습에 젖어 진정한 근대적 개성이나 자유가 존중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아와 개인 감정을 강조하며 이를 추구하려던 지식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사회에서 겪게 되는 갈등으로 인한 고립감은 그 자체로 새로운 사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반을 갖지 못함으로써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당시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으로 전락하였다. 결국은 현실 도피와 자살로 그치고 만 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 낭만주의의 역사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경 유학생 출신 신지식인들이 주도한 신문화운동의

28) 김홍규, 「1920년대 초기시의 낭만적 상상력과 그 역사적 성격」, 217-219쪽 참조.

실상과 허상, 그리고 한국 낭만주의의 실체와 역사적 성격까지 가능하
 데 <사의 찬미>만한 영상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1920년대 한국 낭
 만주의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논문보다 <사의 찬미>가 학생들의 눈높이
 교육에는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1920년대 동경 유학생 출신의 동인지 문
 인들이 어떤 생활과 사고를 했으며 그들이 받아들인 서양 문예사조가 실
 제로 그들의 인생과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구체적이면서도 총
 체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학생들에
 게 영문학, 불문학, 독문학 등 서양문학 전공자의 난해한 논문은 이해, 암
 기시키지 못했어도 그들의 머릿속에 낭만주의의 구체적인 역사적 형상은
 자리잡게 하였으니 어느 정도 효과적인 글쓰기·문학 연계 교육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욱 다양하게 교류되어 영화를
 매개로 해서 문학과 글쓰기를 연계시켜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영화 활용
 교육(Video In Education)’이 일반화되길 기대한다.

● 핵심어: 글쓰기, 글쓰기교육, 문학교육, 낭만주의, <사(死)의 찬미>

<참고문헌>

- 장진경, 「국어 교재로서 영상 텍스트의 활용 방안」(상명대 교육대학원 석
 사논문, 2000.12)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현실문화연구, 2003)
 김동훈(김성수), 「영상예술과 문학교육」, 『문학과 논리』 제5호(태학사,
 1995), 103-125쪽.
 ———, 『여간내기의 영화교실』 제1,2권 (컬처라인, 2003)
 김효중 외, 『문예사조론』(새문사, 2003)
 김홍규, 「1920년대 초기시의 낭만적 상상력과 그 역사적 성격」, 『문학과
 역사적 인간』(창작과비평사, 1980), 214-271쪽.

- 박철석, 『한국 낭만주의 시 연구』(세종대대학원 박사논문, 1987)
- 백 철, 『신문학사조사』(민중서관, 1953)
- 오세영, 『한국 낭만주의 시 연구』(일지사, 1980)
- 유지나, 『1990년대 한국영화』 『한국영화사공부 1980-1997』(이채, 2005),
81-141쪽.
-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역사비평사, 2003)
- _____,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휴머니스트, 2007)
- 이재승,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과정 중심 접근』(교육과학사, 2002)
- 이철, 『경성을 뒤흔든 11가지 연애사건』(다산초당, 2008)
- 이효인, 『영화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개마고원, 2003)
- 정재찬,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역락, 2003)
- 정현기, 『낭만주의 문학의 한국적 수용』, 이선영 편, 『문예사조사』(민음사,
1996), 292-311쪽.
-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지식산업사, 2002)
-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허실』(지식산업사, 1996)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현대문학사, 1956)
- 최유찬, 『문예사조의 이해』(실천문학사, 1993)
- 최인자, 『서사문화와 문학교육론』(한국문화사, 2001)
- 하라타 유미, 임경화 역, 『여성 표현의 일본 근대사』(소명출판, 2008)
- Flower, Linder & Hayes, John R., "Identifying the organization of writing processes," L. Grege & E. Steinberg ed., *Cognitive Process in Writing*, Hillsdale, NJ : LEA., 1980. pp. 5-30.
- Flower, Linder , 원진숙 황정현 역,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동문선, 1998)
- Leki, Ilona, *Academic Writing: Exploring Processes and Strategies*, Cambridge Univ Pr, 1999.
- 로빈 우드, 이순진 역, 『베트남에서 레이건까지』(시각과언어, 1994)

<Abstract>

The Ideality and Reality from Writing Education and Literary
Education through the Use of Cinema

-In Case of the Romanticism in 1920's and the Class on <Death song>-

Kim Seong-su

This Study purposes to show the concrete example and the effect originated from the class through cinema in the education field in order to realize the ideality of the writing education and literary education through the use of cinema. The explanation through presenting cinema as well as typing media as reference material shows great effect in class. So, this writing introduces a concreted method that teachers are conducting the culture education with presenting the cinema <Death song> (1991) as an example in the education field. The cinema has various characters which were under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and restraint, were in the agony with the colonial reality in 1920's and faced it. The Korean romanticism such as the conflict between ideality and reality, emotion originated from escapism and despair, and hymn to death was showed in the cinema. At the same time, was also showed the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stic of 'New Cultural Movement' occurred by the artists from Korean students studying in Tokyo including poet, novelist, painter and musician. In 1920's, <Death song> was more effective in the writing education and literary education for students rather than any other theory and explanation about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romanticism.

• Key words: Key Words: Writing, Writing Education, Literary Education, Romanticism, <Death song>

* 이 논문은 2009년 2월 5일 투고되었고, 2월 20일 심사 완료되어 2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